



김국영이 지난 해 서울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남자일반부 100m 결승 경기에서 여유있게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예비역’ 김국영 광주시청 복귀 9초대 목표 다시 전력질주한다

한국 육상을 대표하는 스프린터 김국영(29)이 군 복무를 마치고 광주시청에 복귀했다.

국군체육부대(상무)에서 복무하다 16일에 전역한 김국영은 “복무를 하면서도 훈련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았는데 좋은 기록을 내지 못하고 전역해 아쉽다”고 말하면서도 “내 목표는 변한 적이 없다. 늘 9초대 진입을 꿈꾼다”고 말했다.

마지막 휴가를 받았을 때도, 전역한 날에도 김국영은 훈련했다.

김국영은 “아킬레스 쪽에 통증이 조금 있어서 부상으로 내려와 재활 훈련을 시작했다. 소속팀 광주시청에 합류해 10월 13일 김천에서 열리는 실업 대회, 10월 19일 예전에서 개막하는 전국대학·일반 육상경기대회를 준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많은 한국 남성이 전역하는 순간,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낀다.

김국영도 그렇다. 그는 “나도 곧 만 서른이 된다. 2~3년 이내에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조금 부담도 느낀다”고 털어놓았다.

김국영은 19세 때부터 육상 단거리 불모지 한국을 대표하는 스프린터로 살아왔다.

그는 2010년 10월 7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 육상 선수권대회 남자 100m 예선에서 10초31로 서말구가 1979년 멕시코에서 세운 한국기록 10초34를 31년 만에 바꿔놓았다.

그리고 준결승에서 10초23을 기록하며 포효했

상무 복무 후 지난 16일 전역 100m 한국신기록만 5번 갱신 도쿄올림픽 기준기록 통과 총력

“9초대 진입 포기하지 않아 2~3년 안에 인생 목표 이룰 것” 심재용 감독 “광주육상 빛낼 선수”

다. 새로운 한국기록이었다. 김국영은 2015년 7월 9일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10초16의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 한국 선수 중 처음으로 10초1대의 기록을 낸 스프린터가 김국영이다.

2017년 6월 25일 강원도 정선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BS배에서 10초13으로 기록을 경신하던이, 이를 뒤인 6월 27일 같은 장소에서 치른 코리아오픈 국제육상경기 100m 결선에서는 10초07에 결승선을 통과하며 개인 다섯 번째로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

한국 남자 100m 최초로 10초0대에 진입한 선수도 김국영이었다.

하지만 김국영은 “2017년 10초07로 한국 기록을 세운 뒤, 내 기록도 정제됐다”며 “시간이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다. 내 나이를 생각하면 2022년까지는 뭔가를 해내야 한다”고 스스로 다그쳤다.

마침 동기 부여도 생긴다. 도쿄올림픽 남자 100m 기준 기록은 10초05다. 김국영의 개인 최고이자, 한국 기록을 0.02초 앞당겨야 기준 기록을 통과해 올림픽 본선 무대에 오를 수 있다.

김국영은 “내 단기 목표는 도쿄올림픽 기준기록 통과다. 준비할 시간을 벌었으니, 꼭 기간 안에 10초05를 넘겠다”고 의욕을 드러냈다.

2~3년 중장기 목표는 더 높다.

그는 “내 나이를 생각하면 최상의 몸 상태로 될 수 있는 기간이 2~3년일 것 같다. 마침 2021년에 올림픽, 2022년에 세계선수권과 아시안게임이 열린다. 후회 없이 뛰고, 결과를 만들면 2022년 연말에 정말 출가분한 마음으로 치열하게 뛰었던 내 육상 선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다시 ‘100m 9초대 진입’을 화두에 올렸다.

김국영은 “모두가 ‘한국 선수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해도, 나는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심재용 광주시청 육상팀 감독은 “김국영이 복귀가 팀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김국영의 꿈이 바로 내 꿈이다. 도쿄올림픽에서 반드시 좋은 성적을 내 광주는 물론 광주육상의 저력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 선동열·황영조·김수녕·故 조오련 2020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후보에

10월 18일까지 국민 지지도 조사

‘국보급 투수’ 선동열 전 야구대표팀 감독과 마라톤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 신궁 김수녕, ‘아시아의 물개’ 고(故) 조오련이 2020년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후보에 선정됐다.

대한체육회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20년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선정을 위한 국민 지지도 조사를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체육회는 9일 제12차 스포츠영웅 선정위원회를 열어 추천위원, 체육 단체, 출입기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스포츠영웅 선정을 위한 후보자를 추천받은 결과와 체육인단 및 추천기자의 최종후보자 추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후보자 4명을 결정했다. 국민 지지도 조사는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와 포

털 사이트 네이버 메인 팝업창, 2020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선정 투표창 (<http://hero.sports.or.kr/2020vote>)에서 진행된다.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은 선정위원회와 평가 기자단의 정성평가(70%)와 국민지지도 조사(30%) 결과를 합쳐 최종 선정되며 스포츠영웅 선정자는 대한체육회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다.

역대 스포츠영웅은 ▲2011년 고 손기정(마라톤), ▲2013년 고 김성집(역도), ▲2013년 고 서운복(마라톤), ▲2014년 고 민관식(스포츠행정), 장창선(레슬링), ▲2015년 양정모(레슬링), 박신자(농구), 고 김운용(스포츠행정), ▲2016년 김연아(피겨스케이팅), ▲2017년 차범근(축구), ▲2018년 고 김일(프로레슬링), 김진호(양궁), ▲2019년 엄홍길(산악)이다. /연합뉴스

## 새 역사 쓴 ‘킹’ 제임스

시즌 올-NBA 팀에 선정 통산 16번째로 역대 최다

‘킹’ 르브론 제임스(LA 레이커스)가 미국프로 농구(NBA) 시즌 올-NBA 팀에 통산 16번째 선정되며 부문 최다 기록을 세웠다.

NBA는 17일(한국시간) 2019-2020시즌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들로 구성된 ‘퍼스트 팀’(First Team) 명단을 발표했다. 이는 시즌 베스트 5에 해당하는 부문이다.

이번 시즌 퍼스트 팀에는 제임스 외에 야니스 아데토쿰보(밀워키), 제임스 하든(휴스턴), 루카 돈치치(달라스), 앤서니 데이비스(LA 레이커스)가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제임스와 아데토쿰보는 미디어 관계자들로 구성된 투표인단 100명으로부터 모두 퍼스트 팀 표를 획득해 만장일치로 뽑혔다.

NBA는 매 시즌 퍼스트 팀에 이은 세컨드 팀(Second Team)과 서드 팀(Third Team)도 뽑는데 제임스는 이번 시즌까지 퍼스트 팀에 13번, 세컨드 팀에 2번 선정됐고 서드 팀에도 한 차례 이름을 올려 ‘올-NBA 팀’에 총 16차례 발탁됐다.

이는 역대 최다 기록으로 지난 시즌까지는 제임스 외에 코비 브라이언트, 카림 압둘 자바, 팀 덩컨이 올-NBA 팀에 총 15번 선정됐다.

이 가운데 퍼스트 팀 최다 선정 역시 제임스의 13회고, 브라이언트와 칼 말론이 11회씩으로 그다 음이다.

이번 시즌 세컨드 팀에는 커와이 레너드(LA 클리퍼스), 니콜라 요키치(덴버), 데이미언 릴러드(포틀랜드), 크리스 폴(올라호마시티), 파스칼 시아캄(토론토)이 이름을 올렸다.

서드 팀은 제이슨 테이텀(보스턴), 지미 버틀러(마이애미), 루디 고베르(유타), 벤 시먼스(필라델피아), 러셀 웨스트브룩(휴스턴)으로 구성됐다. /연합뉴스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이 17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BNL 이탈리아 인터내셔널 단식 2회전에서 파블로 카레노 부스타(18위·스페인)를 상대로 경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조코비치·나달 로마 마스터스 나란히 16강 진출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와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BNL 이탈리아 인터내셔널(총상금 346만5045유로) 단식 16강에 진출했다.

조코비치는 17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단식 2회전에서 살바토레 카루소(87위·이탈리아)를 2-0(6-3 6-2)으로 물리쳤다.

이달 초 US오픈 16강에서 실점 후 공을 신경질적으로 쳐내는 바람에 실격패를 당한 조코비치는 이후 첫 경기에서 가볍게 승리했다. 그는 이 대회 1회전은 부전승으로 통과했다.

나달 역시 이날 2회전에서 US오픈 4강까지 올랐던 파블로 카레노 부스타(18위·스페인)를 2-0(6-1 6-1)으로 완파했다.

조코비치와 마찬가지로 1회전 부전승 혜택을 받은 나달은 올해 2월 멕시코 대회 이후 약 7개월 만

에 투어 대회에 나와 복귀전에서 이겼다.

조코비치의 다음 상대는 필리프 크라지노비치(29위·세르비아)로 정해졌고, 나달은 밀로시 라오니치(19위·캐나다)-두산 라요비치(25위·세르비아) 경기 승자와 16강에서 만난다.

함께 열리고 있는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BNL 이탈리아 인터내셔널(총상금 209만8290달러)에서는 시모나 할레프(2위·루마니아)가 제스민 파울리니(99위·이탈리아)를 2-0(6-3 6-4)으로 꺾고 16강에 올랐다.

올해 US오픈에서 준우승한 빅토리아 아자렌카(14위·벨라루스)는 1회전에서 비너스 윌리엄스(70위·미국)를 2-0(7-6(9-7) 6-2)으로 물리치고 2회전에 진출했다. 아자렌카는 US오픈 준결승에서 윌리엄스의 동생 세리나 윌리엄스(9위·미국)를 꺾고 결승에 올랐다. /연합뉴스

## 프로농구 KBL컵대회 20일 군산서 개막

MG새마을금고 KBL컵대회(이하 컵대회)가 20일 전북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개막한다.

프로농구 사상 최초로 열리는 컵대회인 이번 대회에는 10개 구단과 상무까지 11개 팀이 출전해 27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번 대회가 종료된 이후 약 2주 만인 10월 9일에 정규리그가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컵 대회는 2020-2021시즌의 ‘전초전 성격’으로 팬들의 기대를 모은다.

8월에 원주 DB와 서울 SK, 안양 KGC인삼공사, 전주 KCC 등 4개 팀이 출전해 치를 예정이던 ‘서머 매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취소된 아쉬움도 이번 컵대회를 통해서 달랠 수 있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서머 매치’에는 출전이 제한됐던 외국

인 선수들이 이번 컵대회에는 뛠 수 있기 때문에 ‘새 얼굴’들이 대거 등장한 외국인 선수들의 기량을 확인할 수 있다.

DB에 아시아 쿼터로 입단한 프로농구 사상 첫 일본인 선수 나카무라 타이치가 이번 대회에서 어떤 기량을 보일지도 관심 포인트다.

여기에 이대성(오리온), 김지완, 유병훈(이상 KCC), 장재석, 김민구(이상 현대모비스) 등 이적한 선수들 역시 새 유니폼을 입고 첫선을 보인다.

우승 상금 3천만원, 준우승 상금 1천만원이 걸려 있고 4개 조 1위 팀이 4강에 진출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팀을 정한다.

스포츠 전문 채널 SPOTV2와 SPOTV 골프&헬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생중계한다. 이번 대회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물란
2관	물란
3관	기괴괴괴 성형수, 지니우스 독매지칼: 공주를 웃겨라
4관	오 문화
5관	기괴괴괴 성형수
6관	물란
9관	테넷
7관 씨네커틀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아트랙션
8관 씨네커틀	뉴 유턴트, 더 렌탈: 소리없는 감시자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경계의 공간**

GAC기획전시

2020. 9.1.(화) ~ 11.1.(일)

광주문예회관 갤러리

**알폰스 도데의 '별'**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운드 드라마

2020. 9.24.(목) AM 11:00, PM 3:0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11시 음악산책 정재형의 프롬나드**

2020. 9. 29.(화) AM 11:0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